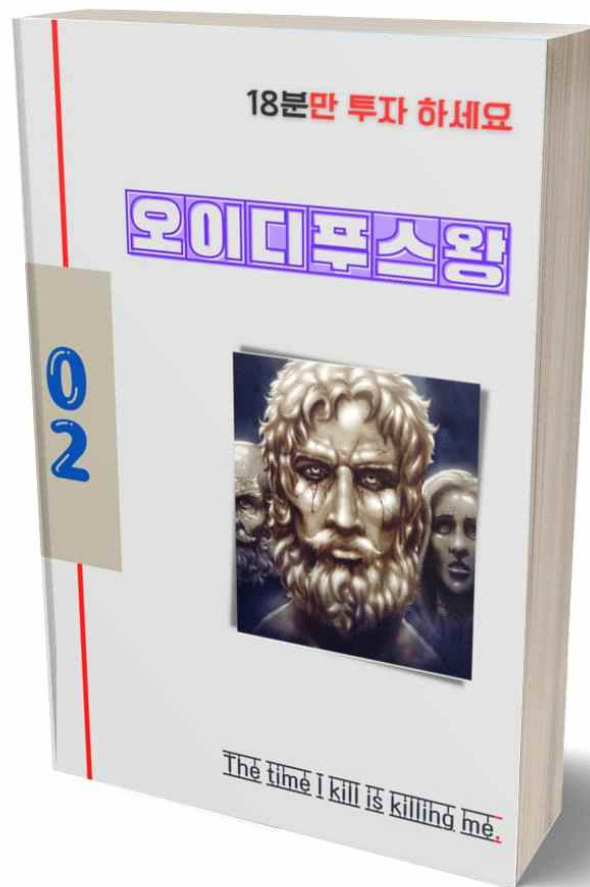


# 18 minutes is Enough



## 오이디푸스 왕 간단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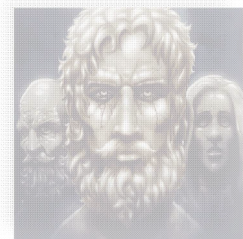
"오이디푸스왕"은 소포클레스가 쓴 그리스 비극으로, 이야기는 테베의 왕 오이디푸스가 도시를 괴롭힌 저주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저주는 전(前) 왕인 라이오스 왕이 살해된 결과이며,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살인자를 찾아내어 처벌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코린토스 왕과 왕비에게 입양되었으며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이라는 신탁을 알게 됩니다.

오이디푸스는 이 예언이 실행하지 않도록 코린토스를 떠납니다. 여행길에서 라이오스 왕과 수행원들을 만나, 다툼 끝에 오이디푸스는 그들을 죽입니다. 오이디푸스는 테베에 도착하고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푼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고 테베 왕으로 추대됩니다.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왕의 살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자신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결혼한 이오키타스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죠. 오이디푸스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절망에 빠져 스스로 눈을 파냅니다.

이오키타스는 진실을 알게 된 후 목을 매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테베를 떠나 망명길에 오릅니다



## 오이디푸스 왕 요약



"오이디푸스 왕"으로도 알려진 "Oedipus Rex"는 고대 그리스 극작가 소포클레스가 쓴 비극(悲劇)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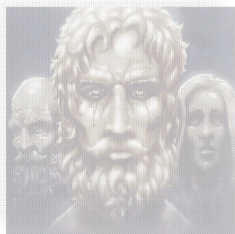
테베왕 라이오스는 예언자에게서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는 예언 듣고서 갓난아이인 오이디푸스의 발을 핀으로 단단히 묶어 죽이라고 왕비 이오키타에게 시킨다. 왕비 이오키타는 하인에게 이 일을 지시하지만, 그 하인은 아기를 들판에 버린다. 아기 운명은 신에게 맡긴 셈이다.

한 목동이 아기를 발견하고 오이디푸스라고 이름 짓고 혼자 길러 보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므로, 여름 동안 멀리서 가축 떼를 몰고 온 또 다른 목동에게 오이디푸스를 준다. 그 두 번째 목동은 아이 오디푸스를 코린토스로 데리고 갔고, 자식이 없던 코린토스의 왕 폴리버스는 오이디푸스를 친자식처럼 기른다.

오이디푸스는 청년이 되어 자신이 폴리버스와 메로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소문을 듣는다. 그들은 부정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여전히 의심한다. 그는 누가 자신의 생부인지, 아폴로 신전의 예언자에게 묻는다.

예언자는 그가 한 질문에 직접 답하는 대신 그가 자신의 어머니와 맺어지겠고 아버지의 피를 손에 묻힐 운명이라 말한다. 낙담한 오이디푸스는 예언된 운명을 피하려고 코린토스를 떠나 테베로 떠난다. 즉 신탁 예언을 사전에 막으려고 폴리버스와 메로페에게서 떨어진다.

테베로 가는 길에 시골 교차로에서 오이디푸스는 생부인 테베의 왕 라이오스를 만난다. 그들은 서로 알아보지 못한다. 왕은 테베를 괴롭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오라클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델파이로 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2륜 전차의 우선 통행 때문에 싸움을 벌인다. 결국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아버지인 왕 라이오스와 수행원들을 살해하고 만다.



도중에 스팅크스라는 괴물을 만난다. 스팅크스는 테베의 시민들에게 같은 문제를 반복해 내어 답을 못맞추면 잡아먹는다. 그런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오이디푸스가 해결한다. 오이디푸스가 테베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끔찍한 저주에 휩싸여 농작물은 시들고, 동물들은 죽어가고, 여인들은 사산아를 낳고 있었다. 해결책이 절실했던 테베 사람들은 오이디푸스가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자 그를 구세주로 추대하고 왕으로 삼았으며, 당연히 왕비이자 자신의 친모인 왕비 이오키타스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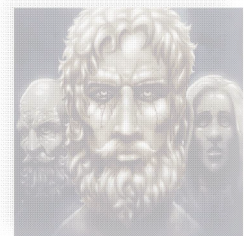
오이디푸스는 오랫동안 테베를 통치했고, 네 명의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전염병이 도시를 덮치며, 여전히 저주가 풀리지 않았다, 그는 처남 크레온을 델포이의 신탁에 보내 이 저주를 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크레온은 신탁의 대답을 듣고 돌아와 라이우스를 죽인 범인을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는 답을 듣는다. 오이디푸스는 살인범을 찾기로 결심하고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서기로 한다.

조사중에 두 번째 전령이 어린 오이디푸스를 길렀던 목동과 함께 도착했다. 그는 오이디푸스가 왕 라이오스에 의해 버려진 아들이라고 밝힌다.

오이디푸스왕이 라이오스이자 친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인 이오키타스와 결혼한 진실이 밝혀지자, 이오키타스는 절규하며 수치심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한다. 뒤이어 오이디푸스가 그녀의 시신을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 이오키타스의 옷에 붙어있던 황금 브로치로 자신의 두 눈알을 파낸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아이들을 크레온에게 맡기고, 크레온은 그를 추방한다고 선언하며 극은 끝난다.



## 오이디푸스 왕 주요 등장인물



**크레온** - 크레온은 오이디푸스의 매형이며 오이디푸스가 몰락한 후 테베의 왕이 됩니다.

**이오카스테** - 이오카스테는 오이디푸스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극 초반에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찾는 오이디푸스를 위로하려 하지만, 나중에 자신이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오이디푸스** - 오이디푸스는 극의 주인공이자 테베의 왕이에요. 그는 자신의 출생과 테베를 괴롭힌 저주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는 자랑스럽고 자신감 넘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추구하다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비극적인 몰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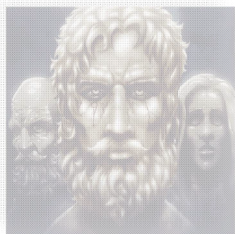
**티레시아스** - 티레시아스는 오이디푸스에게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상담을 받는 눈먼 예언자예요. 티레시아스는 처음에는 말을 거부하지만 결국 오이디푸스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자신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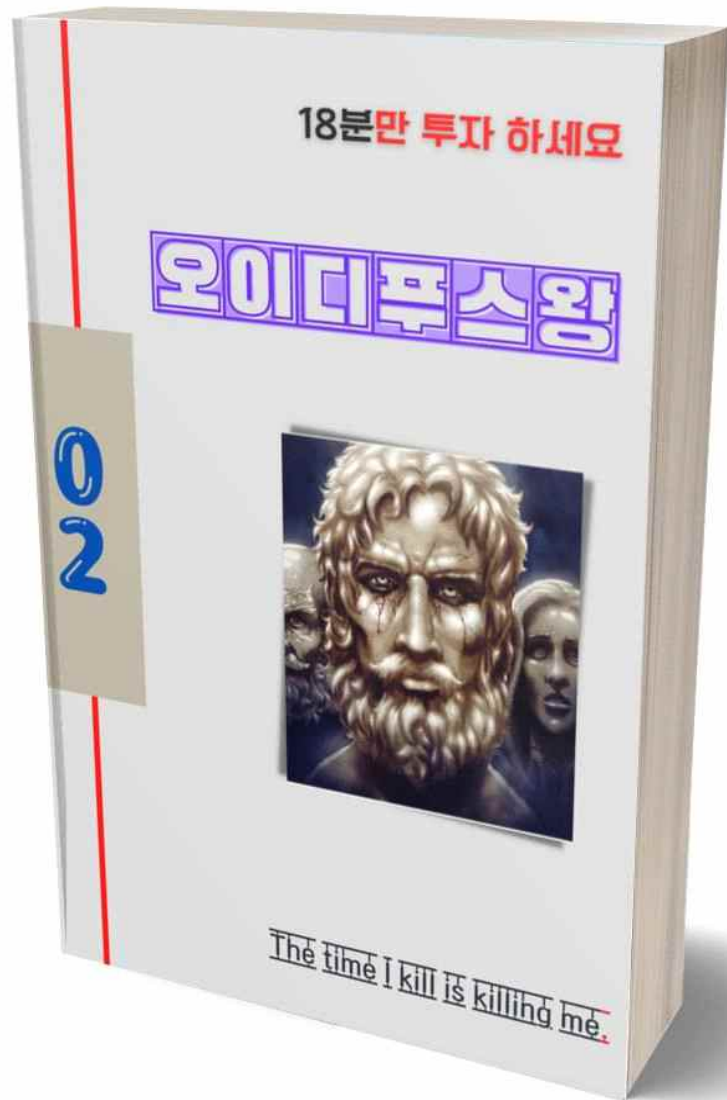
**코러스** - 코러스는 극 전반에 걸쳐 해설을 제공하는 테베 원로들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목자** - 목자는 오이디푸스의 탄생을 둘러싼 사건의 목격자이자 그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인물입니다.

**메신저** - 메신저는 코린토스에서 온 전령으로 폴리부스 왕의 죽음 소식을 오이디푸스에게 전하며 그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찾게 하는 인물입니다.

**사제** - 사제는 극 초반에 오이디푸스에게 접근해 테베의 저주를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종교적 인물입니다. 그는 종교 공동체를 대표하며 극에서 신성한 정의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 오이디푸스 왕 등장인물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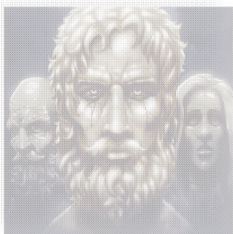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 이오카스테는 오이디푸스의 아내이자 어머니예요. 극 초반에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극이 진행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집니다. 이오카스테는 오이디푸스와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오이디푸스와 티레시아스:** 티레시아스는 오이디푸스의 자문을 받아 라이오스 왕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를 푸는 데 도움을 주는 눈먼 예언자예요. 티레시아스는 자신의 지식을 오이디푸스와 공유하기를 꺼려하지만 결국 오이디푸스의 정체와 라이오스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진실을 밝힙니다. 이는 두 인물 간의 대립으로 이어지며 진실과 그것을 피하려는 오이디푸스의 욕망 사이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오이디푸스와 크레온:** 크레온은 이오카스테의 오빠이자 오이디푸스의 가까운 조언자예요. 극 초반에 크레온은 오이디푸스에게 충성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극이 진행되면서 오이디푸스의 폭정이 심해지자 크레온은 오이디푸스의 리더십에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두 인물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이디푸스와 테베의 시민들:**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으로, 연극은 오이디푸스와 테베 시민들과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극 초반에 오이디푸스는 정의롭고 현명한 통치자로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테베 시민들은 오이디푸스에게 등을 돌리고 그를 거부합니다.



## 오이디푸스 왕 Timeline



오이디푸스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 연극의 **연대순 요약**이다:

**오이디푸스의 출생:**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왕과 테바이의 여왕 이오키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라이오스는 신탁으로부터 아들이 언젠가는 자신을 죽이고 어머니와 혼인 할 운명일 것이라는 말을 듣고 아기를 산에 버려 죽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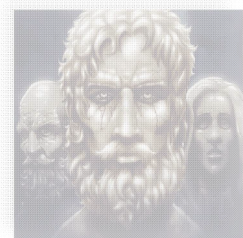
**입양 및 양육:** 오이디푸스는 구출되어 우여 곡절 끝에 코린토스에서 아이가 없는 왕에게 입양되었다. 그는 그들이 그의 친부모라고 믿으며 자랐고 자신의 출생비밀을 알지 못했다.

**라이오스 왕과의 만남:**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 할거라는 신탁을 부정하며 이를 피하려 코린토스를 떠난 오이디푸스는 델포이 근처의 삼거리에서 라이오스 왕과 마주쳤고 라이오스가 그를 모욕주고, 해치려 하자 화김에 그를 죽였다.

**테베 도착:** 라이오스 왕을 죽인 오이디푸스는 테베에 도착하여 도시를 공포에 떨게 했던 스피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었다. 그의 용감함에 대한 보상으로, 그는 테베의 새로운 왕이 되었고 여왕 이오키타와 결혼했다.

**진실의 발견:** 테베 시가 끔찍한 저주에 시달리자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왕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정보를 수집하면서, 그는 천천히 자신이 살인자이고 이오키타가 그의 어머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실명(失明) 및 추방:**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과거의 진실을 깨닫자 공포에 질려 자신의 눈을 파내며 실명한다. 그 후 그는 테베에서 추방당했고, 눈이 멀고 빈털터리가 되어 방황하게 되었다.





## 오이디푸스 왕 여담



### 1. 오이디푸스(Oedipus) 뜻

'통통 부은 발'이라는 뜻입니다.

어릴때 버려질 당시에 뒤통치를 묶어놓았기에 발이 부은 아이가 된 겁니다.

### 2.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Oedipus complex)

남아가 3세에서 5세 사이를 오이디푸스기라고 한다.

보통의 남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과 어머니를 동일시하게 된다.

하지만 오이디푸스기에 이르게 되면 어머니와 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와 동일화를 느끼게 된다.

이때 어머니를 이성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질투심이나 경쟁심을 느껴 어머니를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 3. 엘렉트라 콤플렉스 (Electra complex)

여성이 모친을 증오하고 자신의 부친에게 성적 애착을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칼 융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이다.

이름의 유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가멤논의 딸 엘렉트라이다.

### 4. 스팅크스 (Sphinx)

테베로 가는 어느 삼거리에서 오이디푸스는 생부인 테베의 왕 라이오스를 만난다.

물론 그들은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우선 통행을 위해 싸움을 벌인다.

결국 생부인 왕 라이오스를 살해하고 만다.

다음 오이디푸스는 많은 테베시민을 괴롭히던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푼다.

“아침에 다리 네 족, 오후에 두 족, 저녁에 3족인 생물은 무엇인가?”

이에 오이디푸스는 정답으로 “사람”이라 답한다.

아이로 네 발로 걷고 장성하여 두 발로 걸으며, 늙어 지팡이를 짚고 걷는 생물은 사람이다.

절망한 스팅크스는 스스로 절벽으로 몸을 던져 죽는다.

